

제 21 호

예수 부활 대축일

1973. 4. 22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부활절교서>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

“나는 부활이며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요한11.5)

그리스도 안에 친애하는 교형 자매여러분!

오늘은 성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으신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알렐루야의 부활절입니다.

훈훈한 봄바람과 더불어 알렐루야의 부활송가가 온 누리에 메아리치니, 만상은 온통 새생명으로 약동하고 있습니다. 소생하는 대자연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압했던 죽음의 승리가 아무리 확고부동하였고 그의 무덤을 봉인하였던 국가의 봉인이 아무리 신성하였을지라도 “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루가 18.33)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확고부동할 수 없었고, 더 신성할 수는 없었기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간섭하신 많은 사건들로 겹쳐진 구원의 역사는 이제 옛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새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적 구원을 향하여 길이 계속될 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역시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의 사형언도를 받고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죽으신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곧이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모르는 천사에게라면 죽음이 오히려 신비일지 모르나, 죽음을 아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아닌 부활은 확실히 신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는 수많은 집권자들과 학자들의 맹렬한 반대와 여러가지 이설에 부딪쳤지만, 마치 밝은 태양빛과도 같이 엄연히 신앙해왔고, 무수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희생과 선혈로써 증명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부활의 현의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독일의 철학자 스트라우스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어머니의 중심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무너뜨려 보려는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일찌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갈파하시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고린토 1, 15, 14)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부활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며, 생명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병석에서 건강을 되찾을때 생명의 활기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새봄을 맞아 파란 새싹을 보고 생명의 소생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화

초가 지리고 어린이가 커감을 볼때 생명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겨레가 잘 살고 국가나 교회가 번영함을 볼때 생명의 약동을 기뻐합니다. 예술가의 사명이 모든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얻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찾아 얻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과 기쁨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현의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순절이 없는 부활절이 없고, 성금요일의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알렐루야는 있을 수 없으며, 수난이 없는 죽음과 죽음이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도 없는것입니다. 수고 없이 결실을 거둘 수 없으며, 투자없이 이익을 남길 수 없고, 싸움없이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우리의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치욕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을 보고 빠스카의 신비를 발견하였으며, 또한 신앙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하고 신앙의 신비를 힘차게 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은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를 당부합니다.

1. 연중 주일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주일은 주간마다의 반복되는 부활축제로서 부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을 모르는 신자 생활은 부활을 포기하는 무의미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2. 성경과 성서를 자주 읽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3: 마태4.4)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신자생활은 영신 생명을 포기하는 메마른 생활이 되는 것이다.

3. 평신도 사도직에 적극 참여합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의 구원 사명 자체의 한 부분이며, 주께서 친히 성체와 견진을 통하여 이 사도직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헌장 33) 따라서 사도직을 게을리하는 신자생활은 구원을 포기하는 위태로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4. 사제양성 후원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성소 육성의 의무는 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실생활로써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제양성 교령 2) 따라서 성소 육성에 무관심한 신자생활은 제사를 포기하는 불경건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쁜 알렐루야의 부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 4월 일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당신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다이다. 알렐루야.

□ **제 1독서** (사도행전 10 : 34, 37-43, 성서 P. 290)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다.

□ **찬계송** ◎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주님의 오른 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 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 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 하고저. ◎

□ **제 2독서** (고린토전서 5 : 6-8, 성서 P. 378)

순수한 반죽이 되기 위하여 낡은 누룩을 없애라.

□ **부속가** 빠스카의 희생제 찬미를 드리라, 그리스도인아, 어린양이 어미양을 살려냈음이어! 죄인들을 성부께 화해시켰나니, 죽음과 생명이 서로 겨루어 묘한 싸움을 하더니, 죽으셨던 생명의 주, 살아서 왕하심이어! 말하라, 마리아여, 무엇을 길에서 보았던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 그의 무덤을, 부활하신 분의 영광을, 목격자 천사들을, 수건과 옷을 내 보았노라. 내 희망, 그리스도 다시 살아 계시니, 그 제자들 앞서서 갈릴레아로 가시리라.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정녕 부활하심을 우리는 아노니 승리자 임금이시여,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소.

□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빠스카 제물로 희생되셨도다. 알렐루야.

□ **복 음** (요한 20 : 1-9, 성서 P. 258)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 **저녁 미사**(루카 24 : 13-35, 성서 P. 199)

□ **신자들의 기도**

1.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약속하신 주여, 우리의 바램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승리의 주시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이기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성삼위 안에 하나이신 주여, 이 세상 모든 교우들이 당신 안에 하나로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4. 우리의 희망이신 주여, 고통에 짓눌린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소서. ◎

5. 죽음을 이기신 주여,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하게 하소서. ◎

□ **부활 감사송 제1**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빠스카 제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지내사이다. 알렐루야.

□ 양지쪽 □



금 메 달

지난 4월 9일 우리나라의 여자 탁구 선수들은 세계 대회가 열린 사라예보 상공에 태극기를 울렸었다. 온통 국민들은 환희로 들뜨고, 신문 만평은 한국 여자 탁구의 개선의 영광이 밥을 푸는 주걱의 사용에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를 웃겼었다. 여하튼 금메달은 굉장한 것이다. 국민학교 학생들은 학급에서 분단장만 되어도 어깨가 벌어지는지라, 학교 운동회에서 일등도 그렇고, 조그마한 경기 대회에서라도의 금메달 획득은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다.

금메달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밥을 쏘아가며 고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마약의 힘을 빌어서 까지 우승을 하자고 소란을 떠는 바람에 올림픽 경기에서는 이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가 시도되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애쓰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출전시간을 못맞추어서 실격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하고.

가뭇게(?) 금메달을 딴 이야기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둘러리(?) 강도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모두들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모욕할 때, 그의 오른편에 매달린 죄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금메달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그 금메달을 차지해야 할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도 많은데 누가 그것을 받아야 정당한 일일까? 영터리같은 사람들도 상을 많이 타는데, 정말 금메달을 받아야 할 어느 노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건너치는 교회 살림을 애끼듯이 살피온 딸아버지가 엇그제 회갑을 맞았다. 40여년이나 한결같이 애써온 그분의 노고는 주위 사람들이 서둘러서 조출한 자리를 만들게 했다. 그것이 그분이 받아야 할 그 노고에 응분한 대접이 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의 뜻이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어느 신부님이 그분의 손에 끼어준 금가락지 이야기이다. 물론 저 끝날에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걸게요> 하신 그분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금메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부활 대축일이다. (갑)

시간안내

비통의 어머니

지은이 오 기 순신부
(전주 북자성당 주임신부)

값 450 원

※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

신우라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 2212 ㉡ 7071)
김병구(빈첸시오)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 화장☆

결혼 미용실

교우들에게 특별 봉사

이현주(테레사)
전화 ㉠ 6794

중앙성당 앞

* 대화의광장



주님을 처참하게
죽이는자는 누구냐?

오 기 순 신부

우리는 수난시기에 주님의 참혹한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눈에는 비통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만 합니다. 구곡간장을 녹여내는 애통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자가 있다하니 세상에 이렇게도 끔찍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그 처절한 죽음을 생각만 해도 전신에 소름만 끼치고 현기증을 느끼는데, 주님을 그렇게도 참혹하게 죽이는 자는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너희들 중에 그 누가 대죄를 지으면 주님을 끌고타 산상으로 다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자"라고 했어요. 네가 그런자가 아니냐? 혹 내가 그런자가 아니냐? 각자 자기 양심에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주님을 처참하게 죽인다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대죄를 지으며 살아 왔다면 틀림없이 주님을 그렇게

도 처참하게 죽이며 살아 왔어요.

지금 당장에 대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지금 유혈이 낭자하도록 주님을 매질하며, 가시관을 씌우며, 빵을 치며 침을 면상에 뱉으며,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슴을 창으로 울려 찌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대죄를 지으며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도 참혹하게 주님을 죽이며 살아 가겠다는 사람이예요.

성당마다 가득한 신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은 주님을 올려다 보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합장하고 애끓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하는 입으로 주님께 저주를 퍼붓고 합장했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 다시 매질을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슴에 창질을 하는군요. 자기가 믿고 사랑한다는 주님을 이렇게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렇게도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서도 대죄를 짓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일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처참하게 매달린 십자가상 앞에 엎드려 당신을 이토록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인 자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오니까? 숨을 걸우기 전에 어서 말씀하소서! 이렇게 부복하며 떨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빌지 않으렵니까? 이렇게 통곡하지 않으렵니까?

<복자성당 주임신부>

* 이 주간의 성경 *

- 23 (월) 독서(사도 행전 2:14, 22-32, 성서 P. 266)
복음(마태오 28:8-15, 성서 P. 73)
- 24 (화) 독서(사도 행전 2:36-41, 성서 P. 268)
복음(요한 20:11-18, 성서 P. 269)
- 25 (수) 독서(사도 행전 3:1-10, 성서 P. 269)
복음(루가 24:13-35, 성서 P. 199)
- 26 (목) 독서(사도 행전 3:11-26, 성서 P. 270)
복음(루가 24:35-48, 성서 P. 200)
- 27 (금) 독서(사도 행전 4:1-12, 성서 P. 271)
복음(요한 21:1-14, 성서 P. 260)
- 28 (토) 독서(사도 행전 4:13-21, 성서 P. 272)
복음(마르코 16:9-15, 성서 P. 119)

* 신간소개

비통의 어머니 (오기순 신부 지음)

성모님을 찾고 부르며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정으로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비통과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 가슴에 느껴보지도 못한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불행에 지친 불우한 사람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열심이 떨어져 걱정하시는 분, 남편과 자녀때문에 잘못된 고통과 걱정에 지친 모든 여성들, 특히 엄마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좀더 열심히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고싶은 선남선녀들도 읽어보십시오. 특히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꼭 읽어야만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처 복자성당 부녀부>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23(월) 외국 문화 교실(불어, 오후 5~6시)
- 24(화) 젊은이의 광장-유장훈 신부 지도
외국 문화 교실(독어)
- 26(목) 외국 문화 교실(독어)
외국 문화 교실(불어, 오후 5~6시)
- 27(금) 외국 문화 교실(독어)

* 축 부 활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 축 부 활 *

동남 샵프 { T V
냉장고
선품기

전주대리점

전 화 ②8121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 1. 방지거 3회 4월 형제회 (부활주일 오후 2시, 전동) 방지거 3회 회원의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 2. 가톨릭 방송 안내
M.B.C. 방송국은 4월 2일부터 매일 아침 7시 5분부터 10분까지 <사색의 오솔길>이라는 가톨릭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진소 신부님께서 방송에 수고해 주십니다.

(중암)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 1. 신용 조합 월례회(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성당에서 월례회와 더불어 경품 놀이도 있음.
 - 2. 견진 심사(4월 28일까지 명단 제출) 희망자는 수녀님께 명단 제출하시고 준비합니다.
 - 3. 오월의 마돈나 꾸리아 임원 개편
단장 강재희(베드로) <중암>
부단장 김종환(빈첸시오) <덕진>
서기 김이종(갈리스도) <중암>
회계 이이상(필로리아노) <중암>
- 지난 주일 봉헌금 35,044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본당 실리를 도웁시다.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교우 각자의 본분을 다하여 본당살림을 도웁시다. (※교무금 납부 요망)
- 2. 비통의 어머니 발간 본당 신부님께서 사랑의 씨리즈에 이어서 비통의 어머니를 새로 내셨습니다. 비통의 어머니께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뜻으로 이웃 형제들에게도 이를 안내해 줍시다.
□ 지난 주일 성미 5말 3되, 현금 24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1,931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 1. 영세자 축하 파티(오늘 공식 미사 후) 사도회 임원과 뜻있는 교우의 참석과 협조 바랍니다
- 2. 사도회 월례회 (4월 29일)
- 3. 학생회 정기총회 (4월 29일, 공식 미사 후) 제2대 학생회 임원 개선 있음.
- 4. 감사합니다.
부녀회에서 부활 축일을 맞이하여 성당용 커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2,24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 1973년은 청산의 해 금년도 교구 방침에 발맞추어 모든 신자 가정도 영육간에 청산을 합시다.
- 1. 부활 성사 안 받으신 분은 한국 교회 규정을 지켜 정해진 기일안에 성사를 받으십시오.
 - 2. 교무금 미 봉헌자도 빠른 시일안에 봉헌하십시오.
※ 성세 성사는 5월중에 있겠습니다.
□ 지난 주간 교무금 104,2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9,632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새로 영세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 2. 교리시간 안내(중·고 예비신자)
시간-매주일 오전 9시
지도-양석승(부르노)선생님
- 3. 부녀회 월례회(4월 29일 공식 미사 후)
- 4. 피정 미납금을 완수하십시오.
- 5. 감사합니다. 푸른 양지회에서 사무실과 회의실을 페인트칠을 해서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습니다.
☆ 축결 혼 ☆ (4월 28일 10시)
신랑 김호승 군과 신부 남순애(테레사)양
※ 성가대원은 빠짐없이 참참석하십시오.
□ 지난 주일 봉헌금 5,89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새로 영세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 2. L.M.아치에스(다음 주일 오후 2시, 전동성당)
- 3. 각 구역별 단합대회 참석 사항

구역	참석자	전교	체우	%
전동 중암 기타	26	817		6.8
교동 1가	87	604		14.4
교동 2가	27	219		12.3
동완산동	66	443		14.7
서완산동	77	257		29.9
풍남동	43	463		9.3
노송동	52	266		19.6
계	378	3,069		12.3

□ 지난 주일 봉헌금 30,065, 감사합니다.

성세 받으심을 축하합니다

노송동 강순도, 김복래, 김순희, 김정숙, 김종환, 김현근, 김현미, 김황식, 박상수, 박옥혜, 박원양, 박은실, 박정임, 박한순신순래, 신정원, 심정섭, 안광섭오, 길동, 유영진, 유춘수, 이경근, 이경하, 이동현, 이영순, 이이근, 이걸래, 이정래, 이정자, 이한선, 임재성, 임재영, 임정아, 조남주, 정석의, 정안나, 정양례, 정태화, 정희, 최인화, 함용철

덕진 고성순, 김명자, 김은하, 김효순, 박혜경, 임길자, 전정래, 정영주, 조정남, 최선옥, 최용진, 한경자, 전동 강은정, 강흥기, 박경래, 김귀남, 김금주, 김리디아, 김백호, 김선옥, 김순덕, 김재완, 김정기, 김라중, 김효자, 김희근, 문광희, 박경우, 박성수, 박영애, 변스떼파노, 변항진, 손안드레아, 손재영, 송정자, 오경득, 윤성녀, 윤순식, 이봉림, 이숙희, 이연필, 이현경, 장정희, 전이나시오, 전한갑, 정순진, 최베드로, 최삼희, 최상선, 최양례, 탁문희, 한성리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남원 누계 50,000원 덕진 누계 50,000원
복자 누계 1,265,000원 서학동 누계 746,400원
김영문(2만5천원) 손국자(2만원) 김용기, 정양동

조상렬(각1만원), 최수선, 최아네스(각2천원)
전동 누계 1,790,000원
김용환(5만원) 최성용(2만5천원)
중암 누계 2,519,000원
서석진(3천원) 누계 62,791,000원